

# 'X然'의 문법화와 어휘화 연구

— 변천 기제를 중심으로

고 은 미\*

## <목 차>

1. 서론
2. 'X然'의 문법화
  - 2.1 형태소 '然'의 의미 변천
  - 2.2 'X然'의 출현
3. 'X然'의 어휘화
  - 3.1 형용사 'X然'
  - 3.2 의성사 'X然'
  - 3.3 부사 'X然'
  - 3.4 접속사 'X然'
4. 결론

## 1. 서론

Harris & Campbell(1995)은 문법화의 끝은 특정 언어의 유형적 특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董秀芳(2002, 2004)은 중국어는 전형적인 고립어로, 고립어적 특징이 문법화 경로의 선택과 방향을 제약하는데, 중국어의 허사는 최종적으로 의미가 없는 단어의 내부 성분이 된다고 하였다.<sup>1)</sup>

\* 北京大學校 中文系 博士研究生(gao0521@naver.com)

1) 문법 성분이 단어의 내부성분이 되는 것은 Hopper & Traugott(1993)의 문법화 방향 詞匯詞 > 語法詞 > 附着形式(clitic) > 屈折詞綴(inflexional affix)에 부합한다. 중국어의 허사 '了', '着'은 실사에서 문법화 된 후, 'X了'(對了, 好了, 行了, 算了 등)와 'X着'(隨着, 憑着, 順着, 跟着 등)으로 단어의 내부성분이 되었다.

중국어에서 단음절 실질 형태소 ‘然’은 의미가 허화<sup>2)</sup>된 후, ‘X然’의 형태로 형용사(突然, 墳然), 부사(顯然, 欣然), 접속사(雖然, 縱然) 등 품사의 이음절 어 내부 성분이 되었는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미 조어능력을 상실하였다.

본 연구는 형태소 ‘然’의 어떠한 의미적, 문법적 특징이 다양한 품사의 어휘군 ‘X然’을 생성하게 하였는지를 문법화라는 큰 통시적 틀 안에서 문법화와 어휘화로 구분하여 통사 변천 기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어휘화<sup>3)</sup>는 이미 문법화 연구 영역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sup>4)</sup> 어휘화와 문법화의 결합이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이 바로 융합(fusion)과 관련된 연구이다. 董秀芳(2011)은 문법화와 어휘화의 구분은 변천의 결과가 실사(어휘화)인지 허사(문법화)인지가 아니라 변천 과정이 원형적인 문법화 과정에 가까운지 어휘화 과정에 가까운지 즉, 변천 과정의 특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然’이 ‘X然’으로 문법화 하는 과정 중 ‘然’의 의미 허화와 ‘X然’의 출현까지를 ‘X然’의 문법화로 보고, 현대 중국어의 형용사, 부사, 접속사 등 다양한 품사의 ‘X然’의 내부 성분이 되는 과정을 ‘X然’의 어휘화로 본다.

어휘화를 고찰함에 있어서 개별 품사별 ‘X然’의 형성 경로는 鄭奇夫(2007)<sup>5)</sup>에서 추출한 총 924개의 접사 ‘X然’의 예와 상고, 중고, 근고 시대별 문헌에서 추출한 ‘X然’의 예문을 사용한다.<sup>6)</sup> 鄭奇夫(2007)는 접사 ‘X然’의 범위를 내부

2) ‘허화가 ‘문법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본문에서 정의하는 ‘문법화’는 의미가 실사에서 허사로, 형식은 독립적인 성분에서 의존적인 성분으로 변천을 가리키며, ‘허화는 단지 의미의 허화만을 가리킨다.

3) 董秀芳(2006)은 문법화에 대비되는 어휘화는 문법 성분이 어휘 성분이 되는 변천이나 이 정의는 협의의 개념으로 어휘화는 역사적 변천 속에서 광의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語彙化’는 단어가 아닌 형식이 단어가 되는 변천 과정으로 가장 흔한 형식은 구나 통사 구조가 단어가 되는 변천 과정이라고 하였다.

4) Givón(1979)은 話語構成>句法化(語法化)>詞匯化的 변천 과정을 제시하면서 어휘화는 문법화의 기초에서 발생하며, 문법화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5) 鄭奇夫, 《漢語前綴後綴匯纂》(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07:182-322).

6) 본 연구는 상고시기를 선진에서 서한, 중고시기를 동한에서 중당까지로, 근고시기를 만당 오대에서 청으로 선정하고 텍스트의 예문을 추출하였다. 상고시기 예문은 ‘X然’이 다수 출현하는 《論語》, 《孟子》, 《莊子》, 《史記》, 《左傳》 등에서 추출, 중고시기 예문은 《太平經》, 《抱朴子》 등에서 추출, 근고시기 예문은 《敦煌變文集》, 《宋史全文》 등에서 추출하였다. (www.ccl.pku.edu.cn/ 北京大學中國言語學研究中心)

구조에 따라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는데<sup>7)</sup>, 본 연구는 'X然' 결합 후 품사를 기준으로 형용사(①②③포함), 의성사(④), 부사(⑤), 접속사(⑥)의 네 가지로 재분류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然'의 연구가 의미 변천 혹은 어휘 의미 분석(漆凡(2006), 唐艷(2006), 袁源(2011), 임명화(2014), 박유빈(2014), 尹思(2015))에 치우친 것에서 탈피하여, 실사에서 허사로, 허사에서 단어 내부 성분으로의 변천을 중국어 문법화 방향성 관점에서, 변천 기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X然'의 문법화

전통적으로 '然'은 접사의 범주에 속한다. 陳光磊(1993:19)는 접사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근에 부가되어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일종의 형태소로 정의하고, '然'을 '子', '兒', '頭', '巴', '得', '于'와 함께 접미사로 보았다.<sup>8)</sup> '然'이 다른 접미사와는 다르게 '地(的)'의 의미로 문법화 되어 통사적 성

7) 鄭奇夫, 《漢語前綴後綴匯纂》(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07:182-183).

구조	의미	결합 후 품사	대표적인 예
① 단음절 혹은 첩음의 형용사 형태소+然	~한 모양 (~的樣子)	형용사	謙然, 謙謙然
② 명사성 형태소+然	~한 모양 (~的樣子)	형용사	墳然
③ 단음절 혹은 첩음의 동사성 형태소+然	~한 모양 (~的樣子)	대부분 형용사	慊然
④ 단음절 혹은 첩음의 의성사 형태소+然	의미허화, 일부는 的[地]으로 해석	의성사	譙然
⑤ 부사 형태소+然	의미허화, 일부는 地로 해석	부사	胡然
⑥ 개별적인 접속사 형태소+然	허화된 형태소	접속사	縱然

[표1] 접사 'X然'의 범위

8) 陳光磊, 《漢語詞法論》(上海: 學林出版社, 1993:19).

격을 가지는 동시에 완전 허화 되어 접미사로 사용되는 형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본 장에서는 ‘然’의 의미 변천 고찰을 통해 단음절 실질 형태소 ‘然’이 어휘 의미를 잃고, ‘X然’으로 접사<sup>9)</sup>가 되어 형태론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 2.1 형태소 ‘然’의 의미 변천

《現代漢語詞典》 第7版<sup>10)</sup>에 의하면, ‘然’의 다음의 다섯 가지 의미 항목을 가지고 있다. ‘然’은 사용빈도가 높은 접미사 형태소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형용사, 부사, 접속사를 구성하는데, 네 번째 의미 항목이 접미사 ‘X然’의 용법이다.

- ① (指示代詞) 如此: 這樣: 那樣
- ② (形容詞) 對: 不錯
- ③ (連詞) 然而
- ④ 形容詞或副詞後綴: 忽然、突然、顯然、欣然、飄飄然
- ⑤ (姓) 古代的 燃燒와 동일.

‘然’은 《說文·火部》<sup>11)</sup>에서 “然, 燒也”라고 하였다. ‘然’의 본래 의미는 ‘燃燒’이다. 《孟子·公孫丑上》에서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마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然’은 ‘燃’의 본字이다. 그러나 후에 지시대사로 가차되어 ‘如此’, ‘這樣’의 의미를 가지게 되

9) 접사는 현대중국어 어휘의 개념으로 과거 학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다. 최초로 王力(1957)은 《漢語史稿》에서 ‘然’을 ‘詞尾’로, 周祖謨(1959)는 ‘後加成分’으로, 周法高(1961)은 ‘後附語’라고 하였다. 趙元任(1979), 呂叔湘(1979)이 ‘後綴(접미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任學良(1981)은 ‘詞尾’로, 沈夢嚶(1986), 王紹新(1992)은 ‘後綴’로 사용하였다. 楊賀, 《中古漢語詞綴研究》(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16:203-210)

10)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 第7版(北京: 商務印書館, 2016).

11) 許慎, 《說文解字》(北京: 中華書局, 2013).

었다. 《玉篇·火部》에서는 “然，如是也。”라고 하였고, 孔穎達이 疏를 단 《禮記·學記》에서도 “然，如此也。”라고 하였다.

여타의 지시대사와 다르게 ‘然’은 판단문의 용언성 성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술어성 대사’라고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 故事半古之人，功必倍之，惟此時爲然。(《孟子·公孫丑上》)  
(옛 사람들 일의 절반 만하고도, 그 효과가 두 배었는데, 지금도 이렇다.)
- (2) 文人相輕，自古而然。(曹丕《典論·論文》)  
(문인들이 서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다.)

예문(1)에서 ‘然’은 판단 계사 ‘爲’뒤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용언성 성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2)에서도 ‘然’은 ‘그러하다’라는 의미의 용언성 대사로 사용되었다. 판단문이라는 통사구조의 영향으로 ‘然’은 지시대사 ‘這樣’에서 ‘是這樣’이라는 문맥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然’의 문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사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然’의 실사의 의미변천<sup>12)</sup>은 생략하고, 가차된 용언성 지시대사 ‘然’이 접미사 ‘X然’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다룰 것이다.<sup>13)</sup>

《漢語大字典》<sup>14)</sup>에서 실사 의미항목을 제외하면 ‘然’은 ①指示代詞(지시대사) ②副詞(부사) ③連詞(접속사) ④助詞(조사)의 의미항목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예문(3)-(7)를 통해서 상고시기 ‘然’의 지시대사, 부사, 접속사, 조사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12) 段德森(1990), 彭路·彭維(2000), 王興才(2009) 등의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然’의 허화의미는 실사인 동사(燃燒)에서 허화된 것이 아니라 가차의미인 지시대사에서 허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실사 ‘然’은 ‘燃燒’, ‘照耀’, ‘明白’, ‘正確的’의 순서로 의미파생이 이루어졌다.

13) 박유빈(2014:9)은 ‘然’의 기본 의미를 네 가지로 보았다. 첫째, 본래의미는 ‘연소하다, 불사르다(燃燒)’의 의미이다. 둘째, 파생의미는 ‘明白’, ‘照耀’, ‘形成’이다. 셋째, 가차의미는 ‘如此’, ‘這樣’, ‘同意’이다. 넷째, 허화의미는 ‘~的樣子’, ‘像~一樣’, ‘어기사의 의미이다.’

14)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

- (3) 子曰：其然，豈其然乎？(《論語·憲問》)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이 그러한가? 어찌 그것이 그럴 수 있는가?)
- (4) 始也我以女爲聖人邪，今然君子也。(《莊子·天地》)  
 (처음에 나는 당신을 성인으로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군자이다.)
- (5) 然不自意能先入關破秦。(《史記·項羽本紀》)  
 (그러나 나(劉邦)는 스스로도 먼저 관중에 진입하고 진 왕조를 멸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 (6) 孔子曰：“其男子有死之志，婦人有保西河之志。吾所伐者不過四五人。”  
 靈公曰：“善。”然不伐蒲。(《史記》)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 남자는 죽고자 하는 뜻이 있고, 부인은 서하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내가 치고자 하는 자는 4-5인에 불과하다.’ 영공이 말하기를: ‘선합니다.’ 그래서 푸저우를 공격하지 않았다.)
- (7) 歲旱，穆公召縣子而問然。(《禮記·檀弓下》)  
 (날이 가물자, 목공이 현자를 불러서 물었다.)

예문(3)의 ‘然’은 가차된 지시대사의 용법으로 의미는 ‘그러하다(“如此”, “這樣”)’로 여기서 ‘然’은 용언성 대사이다. 지시대사 ‘然’의 용법은 고대 중국어에서는 비교적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문어체에만 그 용법이 남아있다.

예문(4)는 ‘然’이 부사로 사용된 예문으로, 의미는 ‘竟’, ‘就’이다. 부사 ‘然’의 용법은 고대 중국어에만 사용되었고 현대 중국어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예문(5)과 예문(6)은 각각 ‘然’이 전환과 승접의 접속사로 사용된 문장으로, 예문(5)의 ‘然’은 ‘그러나(但是)’의 의미이며, 예문(6)의 ‘然’은 ‘그래서(于是)’의 의미이다. 예문(7)는 ‘然’의 조사의 용법으로 긍정의 어기를 나타내며 의미는 어기조사 ‘焉’에 해당한다. 예문(5), (6), (7)의 접속사 ‘然’과 조사 ‘然’의 용법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크지 않다.

《古代漢語詞典》<sup>15)</sup>에서는 고대 중국어에서 ‘然’의 조사 용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첫 번째는 상술한 예문(7)에 해당하는 긍정의 어기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의 예문(8), (9)와 같다.

15)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 《古代漢語詞典》(北京: 商務印書館, 2014).

- (8) 天油然作云, 沛然下雨, 則苗淳然興之矣。(《孟子·梁惠王上》)  
 (하늘에서 뭉게뭉게 구름이 일어서 충분하게 비가 쏟아지면 짝은 왕성하게 일어난다.)
- (9) 其視殺人如艾草菅然。(《漢書·賈誼傳》)  
 (그는 살인을 마치 草菅을 베는 것과 같이 여긴다.)

예문(8)은 조사 '然'의 두 번째 용법으로, 형용사나 부사 뒤에 사용되어, 상태를 나타낸다. 예문(9)은 조사 '然'의 세 번째 용법으로, 문미에 사용되어 비유를 나타낸다.

상술한 고대 문헌의 예문 분석을 통해, 고대에 '然'은 지시대사, 부사, 접속사, 조사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현대에는 지시대사(문어), 접속사의 용법만 존재함을 알 수 있다.<sup>16)</sup>

'然'의 의미 변천과 관련하여, 龔娜·鄒勇明(2008:47)는 지시대사 '然'이 접미사 'X然'이 되기까지는 각기 접속사, 조사, 직접 접미사가 되는 세 가지 경로가 존재하며, 부사의 '然'은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然'이 단어를 구성한 경우는 'X然' 외에 '然X'도 존재하는데, '然X'는 지시대사가 접속사를 거쳐 단어를 구성하는 경우로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리하면, 접미사 'X然'은 지시대사에 직접 문법화 되거나 조사를 거쳐서 접미사로 문법화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시대사 '然'이 의미가 허화 되어 최종적으로 접미사로 문법화 되는 과정을 밝힐 것이다.<sup>17)</sup>

## 2.2 'X然'의 출현

최초의 'X然'은 어느 시기에 출현했으며 본래 지시대사의 의미에는 어떤 변

16)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 《古漢語虛詞詞典》(北京: 商務印書館, 2012).

17) 呂淑相(1984:277-290)은 조사를 총 A,B,C,D의 네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 D조에 해당되는 것을 접두사, 접미사로 보았다. 馬健忠이 조사를 '助字'로 가장 먼저 문법 술어 명칭으로 제시하였는데, 조사, 어조사, 어기사류의 虛詞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北京: 商務印書館)

화가 일어났을까? 王力(1962)는 고대 중국어에서 '然'이 이미 지시대사와 접미사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sup>18)</sup> 龔娜(2008:48)는 지시대사 '然'은 전국시기에 이미 출현했는데 그것이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그 지시의미를 사용자가 다 알아서 말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도달, 원래의 지시의미가 멀어지고 소홀히 여겨졌다고 하였다. 漆凡(2006:48)은 《孟子》에서 'X然'이 출현한 예가 44회라고 언급하면서, '然'이 형용사, 부사, 동사, 의성사의 접미사로 사용되었는데, 의미는 '~的樣子', '~的', '~地'로 사물이나 동작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尹思(2015:101)는 《莊子》에 이미 고정화된 형용사인 'X然'이 120회 출현한다고 하였다.

(10) 曾西蹴然曰：“吾先子之所畏也。”(《孟子·公孫丑上》)

(증서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기를 우리 선친께서도 두려워하던 바이다.)

(11) 子貢蹙蹙然立不安。(《莊子·天運》)

(자공은 안절부절 못하고 서서 불안해했다.)

《孟子》와 《莊子》에 출현한 예문(10), (11)에서 'X然'은 '~한 모양' 혹은 '~하게'의 의미로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예문(10)의 '蹙然'은 '찡그리는 모양', 예문(11)은 '然'이 형용사 '蹙'의 중첩 뒤에 위치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전국시기에 이미 'X然'이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예문(10), (11)에서 'X然'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는 문법 표지의 기능을 하는 접사이다.

선진시대에 이미 '然'의 지시의미가 소실되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접사의 용법이 출현한 것이다. 'X然'은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형상을 나타내는데, 술어 앞에 위치하면서 의미가 한층 더 퇴색되어 '~하게'라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然'의 경우와 같이 지시대사가 쉽게 문법화 되는 이유를 段德森(1990)<sup>19)</sup>은

18) 王力, 《古代漢語》(北京: 中華書局, 1962).

19) 段德森, 《實用古漢語虛詞》(太原: 山西教育出版社, 1990).



지시대사의 속성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대사 중에 특히 지시대사는 사물, 행위, 형상만을 나타내기에 개괄성과 추상성,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괄성, 추상성과 불안정성이 지시대사인 '然'의 의미 변화를 가능케 한다고 하였다.<sup>20)</sup> 지시대사적 속성으로 인해 '然'은 의미 파생에서 상당한 개방성을 가지고 부사, 접속사, 조사, 단어를 구성하는 접미사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 3. 'X然'의 어휘화

#### 3.1 형용사 'X然'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정의한 형용사 접사는 'X然'에서 'X'가 단음절 혹은 첩음의 동사, 형용사와 명사성 형태소로 이것들이 접미사 '然'과 결합하여 품사가 모두 형용사인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것이다. 鄭奇夫(2007)에 의하면, 접미사 '然'이 구성한 형용사 접사는 총 'X然' 접사 924개 중 808개(87%)로, 이를 통해 형용사 접사가 대표적인 'X然'의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王力(1962)은 지시대사 '然'이 형용사 뒤에 사용되면서 지시성이 감소하고 접미사의 성질로 변한다고 하였다. 또한, '然'의 사용은 형상적인 색채를 더하고, 형용사가 아닌 단어들도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sup>21)</sup>

본 절에서는 지시대사 '然'이 형용사 접사 'X然'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다음은 지시대사 '然'이 사용된 고대 문헌의 예문이다.

20) 龔娜·鄒勇明(2008)도 지시대사 '然'의 품사성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그 허화 정도가 상당히 강하고 쉽게 다른 품사의 영향을 받는데, 대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추상성 때문에 문법소로 확정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였다.

21) 王力(1962), 같은 책, 466쪽.

- (12) 世子曰：然，是誠在我。(《孟子·滕文公上》)  
(세자가 말할길: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 (13) 今時則易然也。(《孟子·公孫丑上》)  
(지금 이때야말로 그렇게 하기 쉽다.)

예문(12), (13)에서 '然'은 지시대사로 의미는 '如此', '這樣'로 문장에서 술어로 사용되었다. 예문(12)에서는 '그렇습니다'의 의미이며, 예문(13)에서는 '그렇게 하다'의 의미로 주로 지시대사에 대한 강조와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 3. 1. 1 재분석<sup>22)</sup>과 유추<sup>23)</sup>

본 연구에서는 용언성 대사 '然'이 형용사 접사 'X然'이 되기까지 언어 변천의 주요 기제인 재분석과 유추<sup>24)</sup>가 작용하였다고 보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然'은 《玉篇·火部》에서 “然，如是也”라고 한 이후로 '然'은 '如'와 '若'과 같이 사용되어 '若……然', '如……然'의 통사구조에 자주 출현하였다.

- (14) 其游如父子然。(《史記·魏其武安侯列傳》)  
(그들의 교유는 마치 부자와 같이 그러하다)
- (15) 人之視己，如見其肺肝然。(《禮記·六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것이 마치 그 폐와 간을 보는 것 같이 그러하다.)
- (16) 不見諸侯，宜若小然。(《孟子·滕文公下》)  
(제후를 알현하지 않은 것은 마음이 협소해져서인 듯하다.)

22) Langacker(1977:58)는 재분석을 '어떤 표현 형식의 변화에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어떤 직접적이거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변화'로 정의하였다. Traugott(1980:49)는 언어 형태의 구조적인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3) Harris & Campbell(1995)에서는 유추(analogy)가 남용된다고 하여 확장(exten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확장은 직접적 혹은 본질적인 심층구조의 변화와는 무관한 표층적 변화로, 하나의 규칙이 보편화되는 것이다. 또한 유추와 확장을 분리하여, 확장은 언어 시스템을 간략화 시키는 변화의 기제로 보았고, 유추는 원인으로 보았다.

24) Hopper & Traugott(1993)은 재분석과 유추를 언어 변화의 주요 기제로 보고, 문법화는 재분석과 유추가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Harris & Campbell(1995)은 통사 변화의 주요 기제는 재분석과 유추, 통사 차용으로 보았다.

지시대사 ‘然’이 ‘若/如……然’의 통사구조에 들어가서 긍정과 강조의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마치 ~와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때 통상 ‘若/如’과 ‘然’사이에는 NP 혹은 N이 위치하게 된다. 예문(14)의 “如父子然”과 같이 “父子”라는 N이 위치하고, “然”이 지시하는 대상이 N이 되어 ‘然’의 지시기능은 여전히 존재한다. ‘若/如+N+然’에서 유추되어 N자리에 VP, AP도 위치하게 된다. 예문(15)에서는 “如見其肺肝然”에서는 “見其肺肝”라는 VP가 출현, 지시대사는 VP가 나타내는 동작 혹은 행동이다. 예문(16)에서는 “若小然”과 같이 “小”라는 형용사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 때 지시기능은 약화되고, 형용사의 상태를 묘사하는 기능이 강화되면서 ‘~한 모양(~的樣子)’의 의미가 된다. 예문(14), (15), (16)의 ‘然’이 지시 기능의 약화로 어기조사로 재분석 된다.

‘若/如+AP+然’의 격식은 ‘……+AP+然+如/若’의 표현형식으로 변화했는데, ‘……+AP+然+如/若’은 사물의 형상 혹은 상태와 관련된 묘사일 뿐만 아니라 뒤에 비교 대상이 출현하여 더욱 생동감 넘치고 구체적인 표현 형식이 되었다. ‘AP+然+若/如’ 구조에서 비교 대상이 생략되어 최종적으로 ‘AP+然’의 형용사 접미사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X然’의 최초의 형식이다.

(17) 無不愛也, 無不敬也, 無與人爭也, 恢然如天下之苞萬物。

(《荀子·非十二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고, 사람과의 다툼이 없으면, 천하의 만물과 같이 드넓게 된다.)

(18) 京師士大夫悵然失望。(《漢書·谷永杜鄴傳》)

(수도의 사대부가 창연히 실망하였다.)

(19) 土地平曠, 屋舍儼然。(陶淵明, <桃花源記>)

(토지가 평탄하게 넓고 집들이 정연하게 서 있다.)

예문(17) ‘AP然如…’에서 ‘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사가 되고 ‘如’뒤에는 비교 대상이 출현하였다. 이후 ‘AP然’의 응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문(18), (19)처럼 문장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부사어와 술어 성분으로 사용되게 된다. 이 ‘AP然’구조에서 유추되어 형용사 대신에 명사, 동사성 형태소가 ‘然’ 앞에

위치하게 되면서 형용사화 접사 ‘AP然’이 생겨난다.<sup>25)</sup>

이를 종합해보면, ‘然’이 형용사 접사 ‘AP然’이 되는 과정에는 재분석과 유추의 기제가 작용하였다. ‘若/如+N/VP/AP+然’의 구조에서 ‘然’이 지시대사에서 어기조사로 재분석되었다. 첫 번째 유추는, 본래 ‘若/如+N+然’의 구조에서 ‘若/如+VP+然’, ‘若/如+AP+然’가 유추되었고, ‘若/如+AP+然’구조에서 ‘然’의 지시성이 최고조로 약화되면서, ‘然’이 더 이상 지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를 묘사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유추는 ‘若/如’이 생략된 ‘AP然’에서 유추되어 ‘A’자리에 명사나 동사성 형태소가 위치하는 ‘VP/N然’가 생겨나는데, 의미는 여전히 형용사처럼 묘사적인 성격을 가진다.<sup>26)</sup>

### 3.1.2 의미탈색(隱喻)

Heine(1991)는 의미탈색이 의미의 손실 혹은 소실을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관념을 기반으로 구체적 영역에서 추상적 영역으로 의미의 전이를 나타내는 전이 모형의 본질은 은유라고 하였다.<sup>27)</sup> 아울러 많은 문법화 과정이 “사람>물체>행위>공간>시간>성질”의 은유 모형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본문 3.1.1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然’이 지시대사 이후 의미가 완전히 허화 되기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這樣 → 是這樣 → 如這樣/像這樣 → ~的樣子 → 語法標記

용언성 지시대사 ‘然’은 사물, 행위, 형상을 지시하기에 의미가 개괄적, 추상적이며, 허화 정도가 강해 다른 품사의 영향을 쉽게 받는 품사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와 같다’, ‘~한 모양’의 의미에서 완전히 문법화 된다.

25) 논문 편쪽의 제한으로 본 연구에서는 ‘AP然’의 출현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26) ‘X然’의 묘사성은 ‘AP然’의 과정을 통해 생겨나며, ‘AP然’은 상태 형용사에 해당한다.

27) Heine(1991)는 의미 탈색 모형으로 전이 모형(transfer model)과 문맥 모형(context model)을 제시하였는데, 전이 모형의 본질을 은유로, 문맥 모형의 본질을 환유로 보고, 이 두 개의 모형이 동일한 동작 기제의 유기적 성분으로서 결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然’의 일련의 의미 변화도 상술한 Heine(1991)의 은유 모형에 부합하는데, 사람과 물체, 행위를 포함하는 상황에 대한 지시가 2차원 혹은 3차원적인 시각적 인식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행사에 대한 단순한 지시성의 영역에서 화자의 공간 인식론적인 영역으로의 전이로 나타내며 평면적 공간에서의 화자의 시각적 형상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화자의 시각적 공간 인식은 3.1.3에서 다룰 ‘주관성’의 개념과도 관련된다.

이를 종합하면, ‘然’은 대사의 특성상 지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불특정 지시에서 화자가 인식한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 이동한다. 통사상 지시 대상이 가까이 있으면 앞의 형용사나 동사, 명사, 의성사 등을 지시하게 되는데, 위치상 근접하여 지시의 작용과 성질은 없어지고 상황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然’의 형상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 3.1.3 주관화(subjectification)

본 연구에서는 ‘然’이 형용사 접사 ‘AP然’이 되는 과정에는 재분석과 유추 외에 주관화도 요소도 작용하였다고 본다. 주관화는 통상 문법화 촉발의 기제로는 보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然’이 ‘X然’으로 형용사 접사화 되는 과정에서 주관화가 발생했다고 보아 문법화의 기제와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주관화란 언어 형태의 의미적 변화를 설명하는 기제로 언어 형태의 의미가 변화할 때 덜 주관적인 의미에서 더 주관적인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sup>28)</sup>.

‘然’이 형용사 접사 ‘AP然’이 되는 과정에서 ‘若/如+N+然’, ‘若/如+VP+然’, ‘若/如+AP+然’의 유추를 거치게 되는데 관련 예문은 상술한 (14), (15), (16)이다. 여기서 지시대사 ‘然’은 여기조사로 재분석된다.<sup>29)</sup>

28) 이성하(2016), 같은 책, 161쪽.

29) 여기서 ‘然’은 대부분 선진 문헌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漢代 이후에는 적게 사용되었고, 현대 중국어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 (20) 不見諸侯, 宜若小然。(《孟子·滕文公下》) (예문(16)과 동일)  
 (제후를 알현하지 않은 것은 마음이 협소해져서인 듯하다.)

예문(20)의 '若/如+AP+然' 구조에서 '然'은 '焉'에 해당하는 어기조사<sup>30)</sup>이다. 한 문장 안에서 '如', '若' 등 비유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으면 문장 끝에는 어기조사가 나오는데, 예문(14)-(16)에서의 '然'은 문장 끝에서 비유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다.

董秀芳(2016)은 여기서 어기사를 어기부사, 담화표지와 다기능적인 허사와 함께 주관성을 표현하는 허사라고 하였고, 沈家煊(2003)은 주관화를 의미가 점점 화자의 명제 내용에 대한 주관적 신념과 태도를 나타내도록 변하는 것으로 보고, 의미에서 화용으로의 변천 과정으로 문법화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然'이 형용사 접사 'X然'이 되기 전 단계에서 어기조사로 재분석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의미의 어기조사는 주관화의 표지가 된다.

### 3.2 의성사 'X然'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정의한 의성사 접사는 'X然'에서 'X'가 단음절 혹은 첩음의 의성사로 이것들이 접미사 '然'과 결합하여 품사가 의성사인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것이다. 陳光磊(2003)는 의성사는 사물이나 동작의 변화되는 소리를 묘사하기 위한 성분으로 문장에서 주요 기능은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1)</sup> 의성사 'X然'의 출현은 'X然'의 최초의 구조인 '형용사 접사(AP然)'에서 유추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경로가 존재하는 것일까? 본 절에서는 '然'의 의성사 접사 'X然'으로 문법화 되는 경로를 살펴보도록 한다.

30) 주관성이란 화자가 한 단락의 말을 발화할 때 동시에 그 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나 감정을 표명하여 담화 속에 자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Lyons1977:739)

31) 陳光磊, 《漢語詞法論》(上海: 學林出版社, 1993).

## 3.2.1 유추

의성사 접사 'X然'과 관련하여 王力(1970)은 의성부사(擬聲副詞), 정경부사(繪景副詞)는 처음에 뒤에 '然'이 없던 형태였으나 점차 생기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王力の 설을 근거로 의성사 접사 'X然'의 형용사 접사로부터의 유추 가능성을 살펴본다. 의성사가 단독으로 사용되다가 형용사 접사에서 유추되어 의성사인 'X然'이 생겨났을 가능성에 대해 시대별 고전 문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본다.

- (21) 秩秩斯幹, 幽幽南山。(《詩·小雅·斯幹》)  
 (졸졸 물 흐르는 여기 이 계곡, 그윽하게 깊은 남산)
- (22) 李徹局局然笑曰……。(《莊子·天地》)  
 (이철이 곁곁 웃으며 말했다.)
- (23) 搢搢然用力甚多而見功寡。(《莊子·天地》)  
 (공공대며 힘을 많이 썼지만 효과는 적어 보였다.)

예문(21)은 《詩經》에 출현한 중첩된 의성부사와 정경부사의 예이다. '秩秩'은 중첩된 의성부사로 '졸졸'의 의미로 소리를 묘사한다. '幽幽'는 정경을 나타내는 부사로 중첩되어, '南山'의 '깊고 그윽함'을 한층 더 강조하여 묘사한다.

예문(22)의 '局局'는 의성부사이고, 예문(23)의 '搢搢'은 정경부사이다. 예문(22)는 의성부사인 '局'의 중첩 뒤에 접미사 '然'이 위치하여 소리에 대한 묘사성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예문(23)은 정경부사인 '搢'의 중첩 뒤에 접미사 '然'이 위치하여 묘사성이 강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王力(1970)은 예문(22), (23)의 '局局', '搢搢'가 중첩된 형태를 띠는 것은 의성사나 부사의 중첩이 감정 색채나 의미의 강화 등의 특징을 드러내기 보다는 단지 소리를 그대로 묘사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라고 하였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詩經》에서 중첩형으로 사용된 의성부사나 정경부사가 점차 '然'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이기 되는데, 이러한 王力(1970)의 설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鄭奇夫

(2007)의 의성사 접사 ‘然’ 68개를 살펴보았다. 이 중 ‘然’ 없이 의성사가 단독으로 사용된 예문이 《詩經》에 두 개 보인다.

- (24) 蕭蕭馬鳴, 悠悠旆旌。(《詩經·小雅·車功》)  
(히히 말이 울고, 필릭필릭 수많은 깃발이 나무긴다.)
- (25) 鴻雁于飛, 哀鳴嗷嗷。(《詩經·小雅·鴻雁》)  
(기러기가 날면서 꺼억꺼억 슬프게 운다.)

예문(24)의 ‘蕭蕭’은 말이 우는 소리이고, ‘悠悠’는 깃발이 바람에 필릭이는 소리인데, 孔穎達이 이 예문의 ‘蕭蕭’은 ‘蕭蕭然’으로, ‘悠悠’는 ‘悠悠然’으로 소를 달았다. 또 다른 《詩經》의 예문인 (25)에도 의성사 ‘嗷嗷’이 ‘然’없이 단독으로 사용되었는데, 《毛專》에서는 이를 ‘嗷嗷然’으로 풀이하였다. 이를 통해 ‘然’이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사 뒤에서 기능어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수 있다. 이후의 문헌에서 의성사와 접미사 ‘然’이 결합한 예가 출현한다.

- (26) 填然鼓之, 兵刃既接, 弃甲曳兵而走。(《孟子·梁惠王上》)  
(둥둥 북을 치고, 병기들이 서로 접하니, 갑주와 병기를 버리고 도망간다.)
- (27) 孔子削然發琴而弦歌, 子路拊然執干而舞。(《莊子·讓王》)  
(공자가 탕탕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하고, 자로는 방패를 들고 춤을 춘다.)

예문(26)의 ‘填然’은 북을 치는 소리를 묘사한 의성사이고, 예문(27)의 ‘削然’은 거문고소리를 묘사한 의성사이다. 《詩經》시기 의성사가 단독으로 존재했으나, 전국시기 의성사 뒤에 접사 ‘然’이 결합한 구조가 출현하였다.

또한, 鄭奇夫(2007)의 접미사 ‘然’의 예 총 924개 중 의성사 접사 ‘然’의 예는 68개(7%)인데, 이 중 의성사 겸 형용사 접사 즉, 의성사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형용사로도 해석이 가능한 경우는 17개이다. 또한 첫 번째 의미항목이 형용사 접사이고, 이에서 파생되어 두 번째 의미항목이 의성사 접사인 경우는 13개이다. 이를 통해, 형용사 접사의 영향에서 의성사 ‘X然’이 유추되었고, 접



차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8) 良位其空, 聞人足音蹻然而喜矣。(《莊子·徐無鬼》)  
 (좋은 자리가 비었으니,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는 기뻐했다.)  
 (29) 今子蓬蓬然起于北海, 蓬蓬然入于南海。(《莊子·秋水》)  
 (지금 그대는 썩썩 북해에서 일어나서, 썩썩 남해로 진입한다.)

위의 예문(28)에서 ‘蹻然’은 발걸음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사이기도하고, 기뻐하는 모양 나타내는 형용사이기도 하다. 예문(29)의 ‘蓬蓬然’은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일어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바람 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사로 보기도 한다. 이는 의미상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30) 而愚者自以爲覺, 竊竊然知之。(《莊子·齊物論》)  
 (우매한 사람은 스스로 깨어있는 줄 알고, 으스대며 아는 체를 한다.)  
 (31) 若有物存, 莫識其狀, 其所觸也, 竊竊然有聲, 經物而物不疾也。  
 (《列子·湯問》)  
 (물체가 있는 것 같으나, 그 형상을 모르고, 그것을 만져보니, 작은 소리가 있고, 물건을 경험해보니 물건이 빠르지 않았다.)

예문(30), (31)의 첫 번째 의미 항목이 형용사 접사이고, 유추되어 의성사 접사가 된 것이다. 예문(30)의 ‘竊竊然’은 ‘으스대는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예문(31)의 ‘竊竊然’의 첫 번째 의미는 ‘살펴보는 모습’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竊竊然’의 두 번째 의미는 아주 작은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사이다.

- (32) 警乎其未可制也。(《莊子·大宗師》)  
 (높다랗게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  
 (33) 雖以天下譽之得其所謂, 警<sup>32)</sup>然不顧。(《莊子·天地》)  
 (비록 천하를 다 준다고 하여도, 거만해하며 거들떠보지 않는다.)

www.kci.go.kr

32) 通“傲”, 傲慢; 驕傲。

(34) 吏緣爲奸，天下警警然陷刑者衆。(《漢書·食貨志上》)

(관리가 간사하게 되어, 천하에 거만해하다가 형벌을 받는 자가 많다.)

예문(32)의 ‘警乎(=警然)’는 ‘높다란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예문(33)의 ‘警然’의 또 다른 의미는 ‘가볍고 느린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예문(34)의 ‘警警然’은 ‘많은 사람이 내는 근심 소리’로 의성사이다. 의성사 ‘XX然’ 구조는 문헌에 의하면 대부분 원래 ‘X然’의 구조로 형용사였는데, 형용사 ‘X’가 중첩되어 의성사로 바뀌고, 뒤에 ‘然’이 추가되어 의성사 접사가 된다.

이를 정리하면, 의성사 접사 ‘X然’은 선진시기 형용사 접사의 보편적인 사용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중첩형이었던 의성사가 형용사 접사의 빈번한 사용과 묘사성의 표현으로 인해서, 그 통사 구조와 묘사성이 확대 적용된 것이다. 의성사와 ‘然’이 결합한 것은 통사적으로는 ‘형용사 접사(AP然)’의 유추로 ‘AP然’이 시각적인 형상 혹은 상태에 대한 묘사였다면, ‘의성사+然’은 청각적인 혹은 소리에 대한 묘사로 시각에서 청각으로 감각적 전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3 부사 ‘X然’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정의한 부사 접사는 ‘X然’에서 부사인 ‘X’가 접미사 ‘然’과 결합하여 품사가 부사인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것이다.

鄭奇夫(2007)에 의하면, 접미사 ‘然’이 구성한 부사는 총 924개 중 41개(4.4%)로, ‘X然’구조의 다양한 부사가 대량으로 근대 중국어에 출현<sup>33)</sup>하였고, 대다수가 현대 중국어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必然, 已然, 偶然, 公然, 誠然, 勃然, 剛然, 乍然 등이 부사 접사가 구성한 단어의 예에 속한다.

부사 접미사가 시경시대부터 존재했다는 王力(1980)<sup>34)</sup>의 학설을 근거로

33) 《敦煌變文集》, 《朱子語類》, 《金瓶梅詞話》

34) 王力(1980:315)는 접사 ‘然’은 시경시대부터 5·4운동시대까지 줄곧 글말에서 부사의 접

하여 부사 접사를 형용사 접사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기도 하나, 王興才(2009)는 이를 부정, 부사 접사는 형용사 접사와는 무관하고, 각기 발전 경로가 다르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王興才(2009)의 관점에 입각하여 통사적 재분석의 관점에서 부사 'X+然'을 살펴보고자 한다.

### 3.3.1 재분석

지시대사 '然'은 용언성 대사로 통사적으로 앞에 부사 혹은 부사와 유사한 성분이 '然' 앞에 출현할 수 있다. 즉, '부사+然'의 구조는 통사적으로 출현이 가능하며, 'X+然'의 부사 접사화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亦, 不, 皆, 誠과 같은 것으로, '然'의 의미는 여전히 지시대사인 '如此', '這樣'의 의미이다.

(35)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移其粟於河內；河東凶，亦然。(《孟子·梁惠王上》)

(하내 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곳의 백성들은 하동으로 이주시키고 떠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곡식을 그곳으로 옮겨 주었으며, 하동 지방에 흉년이 들 경우에도 그렇게 했다.)

(36) 孔子曰：“於斯時也，天下殆哉，岌岌乎！”不識此語，誠然乎哉？(《孟子·萬章上》)

(공자가 말씀하시길: 이 시기가 천하의 재앙이다. 이 말을 모르면 확실히 그러한가?)

(37) 古之賢王，好善而忘勢。古之賢士，何獨不然？(《孟子·盡心上》)

(옛날의 어진 왕은 선을 좋아했기에 자신의 권세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옛날의 어진 선비들이라고 유독 그렇지 않았겠는가?)

예문(35)에서는 부사 '亦'이 '然'의 앞에 출현하였고, 예문(36)에서는 부사 '誠'이 '然'의 앞에 출현하였으며, 예문(37)에서는 부사 '不'가 '然'의 앞에 출현하였다. 이외에도 부정부사 '未', 어기부사 '必', 시간부사 '既' 등이 모두 통사적으

로 용언성 대사 '然' 앞에 출현할 수 있다. 위의 예문(35)에서 (37)의 '부사+然'에서 부사와 '然'은 분리된 통사 단위로 부사어와 술어 동사의 수식 관계이다.

재분석을 통해 통사 측면의 단위가 어휘 측면의 단위로 이음절화 되는데, 그 원인은 '然'의 지시 기능의 약화이다. '然'이 지시하는 선행어 자체가 형식상 길고, '然'과 선행어와의 거리가 멀어서, 'X然'을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게 된다.

(38) 臣之君固以刳羊不懼矣, 不然, 百姓非不急也。(《說苑·卷十二》)

(신의 임금은 양을 베는 맹약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백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을 수 없지요.)

(39) 以所任賢, 謂之主尊國安。所任非其人, 謂之主卑國危。萬世必然, 無所疑也。(《春秋繁露·精華》)

(현명한 자를 임명하면 왕이 존경받고, 국가가 안정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면, 왕이 비열해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만세가 필연적으로 이러하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문(38), (39)에서 'X然'은 완전히 이음절화되기 전의 과도기적 단계로 하나의 절을 구성하고 있다. 예문(38)의 '不然'은 '그렇지 않다'이고, 예문(39)의 '必然'은 '분명히 이러하다'로 콤마(,)에 의해 분리된 'X然'과 그 뒤의 동사성 성분 VP는 통사상 서로 다른 층차에 존재한다. 그러나 후행절과 함께 읽으면 재조합과 재분석이 가능해진다.

예문(38), (39)의 'X然'은 다음의 X然, V/VP(뒷 절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 구조에서 재분석이 일어난다. 콤마(,)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앞 절과 뒷 절이 '然'의 지시 기능의 약화로 부사 'X'의 의미 중심이 VP로 향하게 되고, '然'은 한 단계 더 허화 되어 통사 기능을 잃고 잉여 성분이 된다. 이러한 화용적 상황 하에서 '然'이 문법 표지로 전환되게 되고, 'X然'은 최종적으로 부가식 이음절 부사로 고정화 된다.<sup>35)</sup>

35) 어휘화된 'X然'은 접속사, 부사로 쓰이는데, 부사성 어미의 성질이 여전히 존재하여 대량의 이음절 부사가 생겼다. 'X然'의 어휘화는 실질적으로 부사화 접미사가 문법 표지가 되는 과정이다. 어휘화 되었으나 '然'은 순수한 부사성 어미로 시간부사와 어기부사와 결합한다.

- (40) 大王到菴，果然怪遲。(《敦煌變文集·卷二》)  
 (대왕이 암자에 도착했는데, 과연 늦음을 탓하였다.)
- (41) 仍乞嚴行戒勸，必然止絕。(《宋史全文·卷八下》)  
 (이에 절인들은 규율 있게 행동하여, 필연적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근대와 현대의 이음절 부사 혹은 형용사는 위와 같은 재분석을 통해 어휘화되어 고착화된 상태가 된다. 부사 접사 'X然'은 근대시기에 출현하는데, 예문(40),(41)는 'X然'은 같은 절 안의 V를 수식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하나의 단어로 이음절화 되어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X然'과 'V/VP'가 같은 통사 층위가 되어 통사구조에서 어휘구조로 변하게 된 것이다.

- (42) 到了次日，建文帝覽表，竟然見四川岳池教愈程濟一本。  
 (叙渭《續英烈傳》)  
 (다음 날이 되자, 건문제가 표를 보았는데, 뜻밖에 岳池教愈程濟라는 책 한 권이었다.)
- (43) 揭帳一看，仍然是張空床。(《二刻拍案惊奇》)  
 (장막을 들추니, 여전히 빈 침대였다.)

예문(42),(43)은 현대 중국어에서 이미 부사로 어휘화되어 사용된 예문이다. 예문(40)에서는 '竟然'이 '뜻밖에' 라는 의미의 부사로 사용되었고, 예문(41)에서는 '仍然'이 '여전히'라는 의미의 부사로 사용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사 접사 'X然'은 부사와 용언성 지시대사 '然'이, 후행절과 분리된 두 개의 통사구조에서 지시기능의 약화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통사적 재분석에 의해서 근대시기에 부사 접사로 문법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4 접속사 'X然'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정의한 접속사 접사는 'X然'에서 접속사인 'X'가 접미사 '然'과 결합하여 품사가 접속사인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것이다.<sup>36)</sup>

鄭奇夫(2007)에 의하면, 접미사 '然'이 구성한 접속사는 총 924개의 접사 'X然' 중 7개(0.76%)로 그 예는 尙然, 況然, 雖然, 尙然, 脫然, 既然, 縱然이며, 이는 모두 근대에 출현한 것이다. 王楓(2009:117)에서 접속사 'X然'은 지시대사 '然'에서의 직접적인 허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는데, 지시대사는 문맥에 의한 의미 변화가 쉬워서 지시 작용의 소실로 결과 관계 혹은 어기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지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사의 허화는 중국어 역사상 비교적 흔한 현상이라고 하였다. '然'의 의미의 허화는 기존의 지시적 의미가 사라지는 소실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선진 문헌에서 '然'은 기타의 접속사 혹은 실사와 연용 되어 '然而', '然則', '然後' 등을 구성한다. '然'의 구체적인 허화시기에 대해 학자들은 모두 漢代 이후 지시대사의 용법이 점점 적어졌다고 한다.<sup>37)</sup>

陳宝勤(2011)은 '雖然'은 본래 두 개의 단어인데, '雖'는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고, '然'은 '這樣'의 의미의 용언성 지시대사로 상고시대부터 양보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에서 전환을 나타내는 절의 서두에 자주 연용되면서, 중국어 이음절 음을 제약에 의해 양보 전환 연용 구조로 고정화 되었다고 하였다.<sup>38)</sup> 고빈도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중고 초기부터 양보 전환관계의 접속사가 되어 점차 이음절 구조 어휘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 3.4.1 재분석

'然'이 '雖然', '既然' 등의 접속사로 문법화 되는 과정은 대부분 지시대사 '然'의 직접적인 허화로 본다. '然'의 구체적인 의미가 어떻게 열어지거나 심지어는 소실되는 것일까?

36) 楊伯峻외(1992:977)에서도 근대 중국어에서 '然'의 의미가 점차 소실되어 '雖然'가 '雖'의 의미만을 가지는 이음절 접속사가 되었다고 하였다.

37) 王楓(2009:119)는 '然'의 허화의 구체적인 시기는 전국말기부터 진한까지라고 확정 하였다. 《戰國策》부터 '然'의 단독사용이 늘어나고, '然'이 절의 앞에 위치하거나 기타 접속사와 같이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전국말기부터 허화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38) 陳宝勤, 《漢語詞匯的生成與演變》(北京: 商務印書館, 2011:360).

- (44) 雖然, 嘗試言之。(《莊子·齊物論》)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자.)
- (45) 雖然, 方生方死, 方死方生。(《莊子·齊物論》)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생겨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죽자마자 생겨나기도 한다.)
- (46) 雖然, 何以報我。(《左傳》禧公三十三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나에게 갚겠는가?)
- (47) 雖然, 城下之盟, 有以國斃, 不能從也。(《左傳》宣公十四年)  
 (설령 이렇다고 하더라도, 타국과 치욕적인 동맹을 맺는 것은, 국가에 해가 되므로 따를 수 없다.)

《莊子》와 《左傳》에 출현한 예문(44)에서 (47)은 '雖와 然'이 연용된 구조로 앞의 내용에 대한 긍정과 인정으로, 의미는 모두 '비록 이러하지만'이다.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雖'가 의미를 이끌고, 많은 경우 '然'과 연용되지만, '雖'가 '雖然'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然'은 여전히 지시대사 "這樣"의 의미이다. 중고시기 漢代 이후 '雖然'의 '然'은 지시대사의 의미를 잃고 형식 형태소가 된다. '雖'도 접속사 형태소가 되고, '雖然'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음절 접속사로 재분석 된다.

- (48) 雖然貧苦孤微, 然爲兒童, 便好俎豆之事。(《抱朴子·祛惑》)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어린 아이들은 제사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 (49) 師云: "无紋彩。"進曰: "既然如此, 六叶從何來?"(《祖堂卷十一·金峰》)  
 (스승이 말씀하시길: 문채가 없다. 나아가 말씀하시길: 이미 이러한데, 육엽은 어디서 왔느냐?)
- (50) 天變尙然不妨, 人妖寧可盡信?(《東周列國志·第一回》)  
 (하늘의 변화도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데, 귀신도 믿을 수 있겠는가?)

예문(48)은 雖然, 예문(49)은 既然, 예문(50)은 尙然的 뒤에 절이 위치하여, 'X然'이 이미 어휘화 되어 접속사로 사용된 예문이다. 예문(48)에서 (50)은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연용구조로 접속사 접사로 가기 전 단계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然'이 접속사 접사가 되는 과정에는 통사적으로 'X然'이 복문에 사용되면서 재분석의 기제를 통해 연용구조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4. 2 흡수(Absorption)

본 연구에서는 재분석 외에 '然'이 접속사 접사인 'X然'이 되는 과정은 의미상 흡수의 문법화 기제가 작용하였다고 본다. 흡수(Absorption)란 한 문법소가 원래 담당하고 있던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그것이 쓰이는 문맥에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51) 雖然如此, 也要準備。(《三國演義》第十三回)

(비록 이리하지만, 준비해야 한다.)

(52) 東西雖然有了, 然而人不好辦。(《官場現形記》第十六回)

(물자는 비록 준비되었지만, 사람이 처리가 쉽지 않다.)

예문(51),(52)은 근고시기의 예문이다. '雖然'은 양보 전환의 복문에 사용되면서, '然'이 가지고 있던 지시대사의 의미가 문맥에 의해서 소실, 완전하게 허화 되고, '雖然'에서 '雖'가 온전히 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雖然'의 의미공간에서 새롭게 도출된 의미에 의해서 대체되어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전환의 접속사로 흡수된 것이다.

종합하면, 지시대사 '然'이 직접적으로 허화 되어 접속사 접사 'X然'이 되었는데, 지시대사의 지칭성의 약화, '雖'의 의미 강화로, 통사상 복문의 서두에 위치하면서 앞뒤의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접속사 접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시대사의 의미가 문맥에 의해 '雖'에 흡수되는데 흡수는 의미 약화<sup>39)</sup>가 끝난 후에만 발생한다. 중국어 어휘에서 일부 부사는 통사에 의해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부사 접사가 접속사 접사의 지휘를 획득하기도 한다.

39) Bybee et al.(1994)에서는 흡수와 같이 근본적인 변화는 문법화가 거의 끝점에 가까워 문법소가 외부로부터의 의미 유입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약화된 다음에만 가능한 변화라고 주장한다.(이성하(2016), 같은 책, 279쪽.)



## 4. 결론

본 연구는 지시대사 '然'이 품사별 접미사 'X然'으로 문법화(어휘화 포함)되는 전 과정을 고찰한 뒤, 통사 변천 기제와 관련하여 [표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용언성 지시대사 '然' ————— 접사 'X然'  
 대사 '然' → 조사 → 형용사 접사[은유/재분석/유추] → 의성사 접사[유추]  
 → 부사 접사[재분석] → (접속사 접사)  
 → 접속사 접사[재분석/흡수]

[표2] '然'이 'X然'으로의 문법화(괄호 안은 변천 기제)

형용사 접사 'X然'은 용언성 지시대사 '然'이 통사환경에 의해 어기조사로 재분석 되고, 유추를 통해 '然' 앞에 위치한 동사, 형용사, 명사 형태소가 '然'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용사 'X然' 어휘군이 생성되었다.

의성사 접사 'X然'은 묘사를 나타내는 형용사 접사 'X然'과 의미적 기반을 공유하며, 통사적 유추를 통해 형용사 접사에서 그 사용이 확대되어 최종적으로 의성사 'X然'의 어휘군이 생성되었다.

부사 접사 'X然'은 부사와 용언성 지시대사 '然'의 통사상 근접 위치로 인해, 후행절과 결합하여 직접 통사상 재분석이 발생, 부사 접사 'X然'의 어휘군이 생성되었다.

접속사 접사 'X然'은 지시대사 '然'이 복문이라는 통사구조에 사용되면서, 접속사 'X'와 '然'이 재분석을 통해 하나의 어휘가 된다. 'X然'의 'X'가 단어의 전체 의미를 온전히 가지게 되고, '然'은 의미가 허화 되어 문맥에 흡수된다. 접속사 접사 'X然' 중 일부는 기존의 형용사 접사, 부사 접사에서 통사적 위치에 의해 접속사 접사가 된다.

## 〈參考文獻〉

- 박유빈, <'X然'의 허화 의미 분석>, 《中國語文論叢》第65輯, 2014.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16.
- 이성하, 구현정 역(Heine 著), 《문법의 인지적 기초》, 도서출판 박이정, 2004.
- 임명화, <《說苑》에 나타난 '然' 고찰>, 《중국인문과학》 57, 2014.
- 陳光磊, 《漢語詞法論》, 上海: 學林出版社, 1993.
- 陳宝勤, 《漢語詞匯的生成與演變》, 北京: 商務印書館, 2011.
- 董秀芳, <論句法結構的詞匯化>, 《言語研究》, 2002.
- 董秀芳, <“是”的進一步語法化:由虛詞到詞內成分>, 《當代言語學》, 2004.
- 董秀芳, <詞匯化與語法化的聯系與區別>, 《21世紀中國語言學》, 商務印書館, 2006
- 董秀芳, <語法化研究:爭議與發展并存>, 《中國社會科學報》, 2011.
- 董秀芳, <主觀性表達在漢語中的凸顯性及其表現特征>, 《語言科學》, 2016.
- 段德森, 《實用古漢語虛詞》, 太原: 山西教育出版社, 1990.
-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
- 梁銀峰 譯, 《語法化學說》第二版,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8.
- 呂淑相, 《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1984.
- 沈家煊, <語言的主觀性和主觀化>, 《外語教學與研究》第4期, 2001.
-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 《古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4.
- 龔娜·鄒勇明, <“然”的語法化探析>, 《玉林師範學院學報》第4期 第29卷, 2008.
- 劉丹青, <話題標記走向何處——兼談廣義歷時語法化的三個領域>, 《語法化與語法研究(三)》, 北京: 商務印書館, 2007.
- 劉丹青主編, 《語言學前沿與漢語研究——第十章(吳福祥<語法化理論、歷史句法學與漢語歷史語法研究>》,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5.
- 劉丹青, <話題標記走向何處?>, 《語法化與語法研究(3)》, 北京: 商務印書館, 2007.
- 彭路·彭維, <談虛詞“然”的指示范疇>, 《吉首大學學報》, 2000.
- 漆凡, <《孟子》中“然”的詞義討論>, 《樂山師範學院學報》, 2006.
-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1980.
- 王力, 《古代漢語》, 北京: 中華書局, 1962.
- 王楓, <試論指示代詞“然”到連詞“然”的虛化>, 《內蒙古師範大學學報》, 2009.
- 王興才, <“然”的詞目化考察>, 《漢語學報》, 第3期(總第27期), 2009.
- 許小峰, 《近代漢語大詞典》, 北京: 中華書局, 2008.

- 楊 賀, 《中古漢語詞綴研究》,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16.
-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 北京: 語文出版社, 1992.
- 尹 思, <《莊子》中的“X然”類形容詞探析>, 《商丘職業技術學院學報》第4期, 2015.
- 袁 源, <連詞“然”的語法化歷程>, 《言語文字》, 2011.
- 鄭奇夫, 《漢語前綴後綴匯纂》,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07.
-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 《古漢語虛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2.
-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 《現代漢語詞典》第7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6.
- www.ccl.pku.edu.cn/ 北京大學中國言語學研究中心.
- Harris, A. C. & Campbell, L. *Historical Syntax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Hopper, P. & E. C. Traugott.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 Abstract >

#### A Study on Grammaticalization and Lexicalization of suffix RAN

Ko, Eunmi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 X-RAN structure that has produced a number of compound words in modern Chinese from the diachronic perspective of Grammaticalization and Lexicalization.

After the RAN's grammaticalization has been achieved, the process of lexicalized into adjectives, onomatopoeia, adverbs, conjunc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language change mechanism.

In the Zhanguo Period, the RAN was already used as a demonstrative pronoun, its usage expands to everyday life, language users have come to a stage where they know the meaning of the deixis and don't have to mention it, the original meaning of deixis of RAN was bleached and neglected.

Among the pronoun, especially the predicative demonstrative pronoun only presents things, actions and shapes, therefore it has generation, abstraction and instability, these points made its semantic change possible.

In ancient Chinese, the RAN was already used as a suffix of the adjective and later X-RAN was also used as a suffix of the onomatopoeia through the mechanism of analogy, the onomatopoeia which was used alone has function that indicated sound with the RAN attached. Because of the syntactic feature of the predicative demonstrative pronoun, the RAN and the adverbs of the follow were reanalyzed into a single word, adverb. The suffix of conjunction X-RAN is the result of the lexicalization, it went through the mechanism of reanalysis and absorption in the complex sentence.

Key words: affixation, Grammaticalization, Lexicalization, affix-formation, suffix X-RA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7. 31.	2019. 8. 12.	2019. 8. 21.	2019. 8. 28.	2019. 9. 30.